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입법 보강 협조해 달라”

선거대책위 첫 회의 주제 “개발이익환수법 꼭 처리해달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선대위 본격 활동과 함께 부동산 대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야당에는 입법 협조를 압박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바람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재차 강조한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당의 대선후보로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임선대위위원장 송영길 대표는 “개발이익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발의.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언론과 야당은, 왜 추가로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그 논리로 이 법안에 찬성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선대위가 뜻을 올리자마자 부동산 개혁 입법 드라

이브를 거는 데는 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약화한 부동산 민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동선대위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회의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공공에서 흡수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을 외면한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2개 법률을 발의해 둔 상태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의원도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냈다.

경선 당시 이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했던 정책자문그룹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도 이날 정책토론회를 열어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의 ‘부동산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부담률을 50%까지 올릴 경우 화천대유 등에 돌아간 민간배당금 4040억원의 57%인 2301억원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후보 직속위원회인 선대위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이 후보는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재하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국민 민생을 보살피야 한다”면서 당과 원내 지도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면서 “빛을 막 늘리자는 것이 아니지만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표 결집 위해... 또 호남비하 발언

윤석열 지지 서민 교수

“홍어준표 씹다” 망언

정치권·지역사회 맹비난

‘기생충 박사’로 불리는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한 상황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충격이 가시지 않아 서민 교수의 망언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잇따른 호남 비하 발언이 ‘교양 부족’이 아닌 ‘표 결집을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 ‘서민 교수 윤석열 후보의 몸부림을 위해 홍어와 맥주를 대접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화면에서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는 내용이 나왔다. 비난이 일자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즉각 비난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태를 ‘윤석열 사단의 노골적인 호남 비하’로 규정하며 서 교수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시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지지자인 서민 교수가 ‘홍어 준표’라는 썬네일로 유튜브 방송을 했다. 서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아들이 되고 싶다’고 글을 올릴 정도로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윤 후보와 공개 만남을 가져온 인물”이라며 “이러고도 윤석열 후보가 ‘전두

환 찬양’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시당은 “‘홍어’라는 단어는 일베식 언어로, 극우 보수세력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다. 5·18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극단적인 언어”라며 “윤 후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쓴 단어가 일베식 언어를 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를 공개 지지한 서 교수가 노골적으로 호남을 비하하는 일베 용어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옹호 발언 충격이 가시지 않아 서민 교수의 망언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잇따른 호남 비하 발언이 ‘교양 부족’이 아닌 ‘표 결집을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 ‘서민 교수 윤석열 후보의 몸부림을 위해 홍어와 맥주를 대접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화면에서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는 내용이 나왔다. 비난이 일자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즉각 비난이 터져 나왔다.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사학과)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전두환 찬양 발언 및 ‘개사과’ 행위, 윤 후보의 측근인 서민 교수의 ‘홍어준표’ 표현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의도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교수는 “단순 실수라면 이렇게 반복성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평소 호남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혹은 호남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보수 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 했다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시·전남도 의원들 이재명 후보와 원팀으로 대선승리 다짐

“똥똥 뭉쳐 승리 주춧돌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광역의원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원팀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원팀으로 내년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드디어 민주당의 전통, 원팀이 완성됐다”며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패 카르텔과 ‘선량한 국민’의 결집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가장 확실한 카드가 이재명 동지이고, 새로운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길을 닦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전시켜온 선진 대한민국의 길, 공정과 성장, 정의와 인권, 한반도 번영의 평화의 길을 이재명 동지와 함께 힘차게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의원들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똥똥 뭉쳐 주춧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당내 경선과정에서 철학과 소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일 오후 의회 기자실에서 같은 당의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 자연, 학연, 혈연에 따라 각각의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당내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만큼 그 계파를 떠나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남 정치권은 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로 갈려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날 원팀 선언은

지난 2일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에 맞춰 그동안의 경쟁과 갈등 관계를 털어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겠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민주당 소속은 22명이고, 전남은 58명 중 5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 범	유아교육과	31	3	
예 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단지소로 36